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0호 [부록 제25819호] 주제 106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과학연구성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

김일성 종합대 학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에 이따기하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자가 되여야 하겠다.》

대학위원회는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자연과학부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올해에 수백건의 대상과제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가적의미가 크고 무게있는 90여건을 주요대상과제로 선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집단혁신운동의 불길

을 새겨 지어올림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과 수행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니라

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물리학과 화학부의 교원, 연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적으로

영양된 대상으로 만들어오시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고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식량문제, 에너지를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절박하게 나타

는 과학기술과제들을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질학부의 과학자들은 열수부의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에 이따기하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자가 되여야 하겠다.》

대학위원회는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자연과학부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올해에 수백건의 대상과제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가적의미가 크고 무게있는 90여건을 주요대상과제로 선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집단혁신운동의 불길

을 새겨 지어올림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과 수행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니라

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물리학과 화학부의 교원, 연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적으로

영양된 대상으로 만들어오시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고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식량문제, 에너지를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절박하게 나타

는 과학기술과제들을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질학부의 과학자들은 열수부의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당 제7차 대회 결정판에 이따기하는 과학연구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선도자가 되여야 하겠다.》

대학위원회는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자연과학부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올해에 수백건의 대상과제들을 목표로 내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가적의미가 크고 무게있는 90여건을 주요대상과제로 선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집단혁신운동의 불길

을 새겨 지어올림으로써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당과 수행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니라

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물리학과 화학부의 교원, 연구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적으로

영양된 대상으로 만들어오시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

고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식량문제, 에너지를 비롯하여 인민경제발전에서 절박하게 나타

는 과학기술과제들을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질학부의 과학자들은 열수부의

총공격전으로 불리일으키는 당조직정치사업

향해북도안의 경제부문 당조직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인 의의가 되는 올해에 보다 큰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을 점령하기 위한 전진공격전을 힘차게 벌여야 합니다.》

향해북도내 당조직정치사업은 당위원회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을 점령하기 위한 전진공격전을 힘차게 벌여야 합니다.》

향해북도내 당조직정치사업은 당위원회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을 점령하기 위한 전진공격전을 힘차게 벌여야 합니다.》

향해북도내 당조직정치사업은 당위원회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수행을 점령하기 위한 전진공격전을 힘차게 벌여야 합니다.》

향해북도내 당조직정치사업은 당위원회

과 방법으로 벌여나가는 사상교양사업들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정당사상교육사업은 혁신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 온 공장에 긍정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세로

백두산영웅 청년발전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수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5개년전략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합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백두산영웅청년 1호발전소가 조양전대로부터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강수량이 적은 올해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1호발전소의 일관률과 설비반률과 과학적으로 하여 수만kW의 전력을 생산한

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산영웅청년 2호, 3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에서 혁신적으로

당중앙위원회의 지도 밑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발전소에서는 전력공업성과 수력발전관리의 적극적인 방호로

발전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을

발전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을

설비대보수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단천제련소에서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설비대보수전투에 대중을 불리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힘입어 단천제련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련소당위원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미를 가지는 올해에 더

을 넘쳐 수행하였다. 특별직장의 일관률과 로동자들의

대보수과제를 한 단 한 단에 전부 해결해 달라는 목표를 세우고

제련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을

제련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을

제련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을

제련소의 일관률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을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단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평양전력공장에서 -

180여개의 분교건설 및 개건사업 결속

향해북도에서

당의 승고한 후대사상, 미래사상을 이 땅에 더욱 활짝 꽃피워갈

이를 위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2016년 3월에 강령군 식이

향해남도에서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수많은 분교들에 대한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는소리는 최후순을 향하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는소리는 최후순을 향하여

로 부강부글 되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배천군당위원회의 책임일꾼은 물질교과교육의 분교를

이와 함께 일관률이 높고, 교육조건을 높인 수준에서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는소리는 최후순을 향하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는소리는 최후순을 향하여

본사기자 리 정 수

산골군을 시대의 전령에 세운 혁신적인 사업기풍

전형 단위의 영예를 지닌 금강군 일꾼들의 사업을 놓고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된 강원도에서 전형단위가 배출되었다.

강원도를 전국의 알찬에 내세운 당의 믿음과 기대를 피리는 심장마다에 간직한 금강군의 일꾼들과 인민들은 2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군살림살이에서 일대 전환을 이룩하였다. 군소재지가 환하게 번드러졌고 지방공업공장들이 자력갱생의 용음을 높이 울리고 있다. 군안의 협동농장에서는 과학농사의 열풍으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여 산간지대농사에서 통장훈을 불태우며 인민들의 열매를 누려주고 있다. 문맹제 폐지와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인민들의 열매를 누려주고 있다. 문맹제 폐지와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인민들의 열매를 누려주고 있다.

간직하게 되었다.

금강군의 전변은 자기의 행복을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창조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 강국념을 빛나게 실현하고 문맹제 폐지와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인민들의 열매를 누려주고 있다. 문맹제 폐지와 문맹퇴치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인민들의 열매를 누려주고 있다.

대한대도 건별로 따져가며 땀을 흘려왔다.

당책임일꾼의 이신작적과 강한 요구성은 일꾼들을 분발시켰다. 지난 시기 같으면 포지나 하고 조직사업만 진행하던 일꾼들이 철저한 집행자가 되어 공장에서 내달렸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결사추진과 강원도정신이 새창에 찍혀지는 속에 전투는 한주일을만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

40여정보의 새땅을 찾은것도 성과였지만 대중의 심장마다에 떼이기에 대한 학판, 믿음의 신념과 의지가 드높지 않는 바위처럼 엮여있던 것이 들어온것은 더 큰 성과였다.

이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꾼들의 사상관념을 바로잡아준 획기적인 계기로 되었다.

군당책임일꾼은 일꾼들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실력연에 뛰어날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주말로 학습시간을 쪼개고 모든 당, 행정일꾼들이 미배원을 정상적으로 수용하며 선대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였다.

이 나날 군인의 수많은 일꾼들이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였으며 그것은 온 군에 과학기술 열풍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 모든 협동농장에 농업과 학기술보급실이 훌륭히 꾸려지고 고교석상실, 기초식품공장, 종이공장 등 많은 공장, 기업소에서 기술혁신열풍이 세계를 불어났다.

누구의 심장부터 두드렸는가

일꾼들의 역할에 따라 단위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군당위원회는 일꾼들이 혁명의 지휘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았다.

한다면 지난 시기 이쪽 일꾼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2년전 김제군당위원회에서 새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군살림살이 불어났다.

가을경이시기가 닥쳐왔는데 그리하여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꾼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 어떤 묘안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었다. 일꾼들에게 남아 있는 형식주의, 요령주의, 자기 힘을 믿지 않는 패배주의에 중저부를 찍으려는 목적에서였다.

당시에도 건설하였던 공장, 마을, 학교 등도 있었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꾼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 어떤 묘안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었다. 일꾼들에게 남아 있는 형식주의, 요령주의, 자기 힘을 믿지 않는 패배주의에 중저부를 찍으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작동령의 승리방아》는 오늘도 울린다

영웅조선의 승리의 상징인 1211고지와 지혜산 그리고 우리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작동령의 승리방아》, 예술영화 《금강의 새 물소리》와 더불어 금강군은 원군정신이 뿌려졌음을 대변하고 있다. 금강군사람들에게는 예로부터 조국결사수호정신이 류달려 내려왔다는 단단한 긍지가 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불가능을 모르는 투쟁정신으로

금야잡업종자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이것은 누에치기를 잘하기 위해 이쪽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벌인 투쟁의 일부라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나날속에 사업소에서는 올해 10여기의 다수화자들에 배출하고 총지우여알과 고지생산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안아내 주고 있다.

이 일꾼들과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땀 흘렸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이 보름동안 얼마나 치열하고 긴장한 순간을 이여 갔는가를 다 이야기할 수 없다. 더더욱 반대한 항에 달하는 절벽이작업용 계기를 이여 깔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난관이 또다시 앞을 막았다. 지난 시기 절벽을 나무모발에 심은 다음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나 이 날씨가 갑자기 오면 나무모발을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때를 잘라내 버리고 나무모발을 심는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이 올해에 또다시 진행된 40여 정보의 새땅찾기 전투과정을 높고보자.

올해 1월 쏘몰없이 버티던 금강군 강기승훈을 옥도로 전변시키기 위한 전투에 앞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중시한 것은 대중의 심장마다에 전변의 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넘과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화신신전선 동맹이었다.

대고조적전장마다에서 사상적인 명중포화물들이 대자

격동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한 예술선동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시(한번 강조하지는 않으나)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면 천만군이 일떠선것만큼 혁명이 진전합니다.》

최근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기동에예술선동과 속도전청년돌격대 제5려단 청년기동에예술선동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력을 통한 예술선동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 제5려단 청년기동에예술선동대원들

본사기자 적음

의 명중포화라는 찬사의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예술선동활동에서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과 산하단위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력을 가지고 예술선동작업들을 준비하기 시작한것은 지난 8월말부터였다.

본사기자 적음

있다. 하지만 처음 지도국적인 예술선동경연에 나온 작품들은 지난 시기의 고정적화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것들이었다.

기억과 성악을 위주로 한 예술공연의 선동, 공사장에서 열을 진행하곤 하는 경제선동식의 작품들은 구태의연한 눈으로 보았다면 입사리 합격도장을 놓았을수도 있다.

본사기자 적음

수 있었는가.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가슴속에 절절히 새겨 양적의를 최대로 높이면서 도적의현장의 열매에 진행하는 예술선동이 나게 짧은 형식으로 새롭게 창조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력을 소개로 일관시면서 도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로 특색있게 구성하여 귀에 속속 들어가는 선동이 되게 하자. 이것이 처음부터 일꾼들이 모든 예술선동대원들앞에 내세울 요건이다.

본사기자 적음

이 세것을 지향하고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게 될 때라야 비로소 사상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예술창조자들은 그 어떤 기량이 앞서 쓰거나 심장으로 한다. 이쪽 일꾼들이 잘한 점은 또한 자신들부터가 예술선동의 주인, 마이크를 함께 잡는 통지가 되어 청년들의 경쟁심과 창조적열의를 자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본사기자 리 건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동원력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급속공장으로 더 많은 파월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제나 사상사업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명심한 일꾼이라면 마땅히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이쪽 지도국의 일꾼들처럼 겉지 않은 예술선동작업에서도 정과 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수 있게 전심도 도와주어야 한다.

본사기자 차 수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동원력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급속공장으로 더 많은 파월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제나 사상사업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명심한 일꾼이라면 마땅히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이쪽 지도국의 일꾼들처럼 겉지 않은 예술선동작업에서도 정과 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수 있게 전심도 도와주어야 한다.

본사기자 차 수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동원력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급속공장으로 더 많은 파월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좋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제나 사상사업을 첫째가는 중대사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깊이 명심한 일꾼이라면 마땅히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이쪽 지도국의 일꾼들처럼 겉지 않은 예술선동작업에서도 정과 열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최대한의 실효를 거둘수 있게 전심도 도와주어야 한다.

본사기자 차 수

우리도 한 전호에 서 있다

모란봉구역 비파1동 녀맹해설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맹동맹이 강화되고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힘차게 떨쳐나설 때 우리 혁명위업은 더욱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지만 일단 군중앞에 나서면 한사람같이 숨어있는 예술매우가 되고 가수가 되어 대중의 심금을 울려잡는다. 처녀시절에 익혔던 재능으로 여기에는 너무나 능란한 이들의 예술활동을 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전문강사나 배우도 아닌 그들이 어떤 해설도 막힘없이 녀성들의 심리와 정서에 맞게 척척 진행하는 유능한 녀맹해설대원으로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

해설대원들속에는 식물같은 가정의 주부도 있고 남편들과 자식들의 위바라지를 하느라 시간 바쁜 녀인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가정일이 제기된다고 하여 해설대원들을 미련없이 없었으며 봄이 불면하다고 하여 자기의 해설을 다른 성원에게 떠맡긴것은 더욱 없었다. 우리도 시대를 추동하는 사상적인 참전자들이다.

이런 공지와 열정을 안고 이룩하게 노력하는 녀성들이었기에 해설대의 성원은 비록 몇명 안되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었다.

본사기자 우정희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녀맹동맹이 강화되고 녀맹원들과 녀성들이 힘차게 떨쳐나설 때 우리 혁명위업은 더욱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울려잡는 것은 밤과 새벽 그리고 아침에도 대동강안도르케시형 발사장을 찾고있었다. 그러나 우리 원수님께서는 한몸의 위엄도 이렇듯 보이지 않고 최선에 나서시어 대동강안도르케시형 발사장에 대동강에 이르러서서 앉았다. 그 가슴뜨거운 사연에 접한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속엔 정을 감동시켜 놓는 작품은 사람들의 심금을 새차게 울려 사회주의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아에서 창조와 혁신의 노래를 한껏 펼쳐가는 인민의 자부심이 노래가락에 실리고 공화국의 무진강강한 국색을 진동하고있는 원수들의 가련한 몸골이 동태하게 반영된것이 이들의 공예이다.

언제나 시대의 승격을 안고 락전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우리 녀성들의 모습이 작품마다에 비껴 더더욱 인상깊은 공예이다.

중대앞에 어렵고 힘든 과제가 나설 때마다 돌파전의 앞장에는 1소대의 반부들이 서 있었다. 지난 7월 중순 월 석탄생산 목표를 앞당겨 수행한 중대가 새로 마감을 열었다. 중대는 예상치 않게 몸부림이 나가 있는 언덕과 맞닥뜨렸다. 숨이 가빠진 탄벽을 헤치느라 중대의 전진속도가 더졌다. 그때 소대장 김호철동무를 비롯한 1소대의 체포공들은 한 마흔한명이 되어 떨쳐나섰다.

생산정상화에서 틀어진 문제

린산군 건재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이수인 일꾼들의 사업기동과 일선분들의 혁명적투쟁을 요구 하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지 배인은 식료공장에 있을 때 본적이 있는 수제말을 합금에 달대신 리용하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실례가 거듭되었지만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재능과 힘을 합쳐 끝내 파레기용수제말을 자재로 만들어내고야말았다.

우방기구를 흔흔히 푸리는데 힘을 넣은것만큼은 아니었다. 남매는실과 양양장 등 자재로 꾸러주는 후방기구를 애가 자기 남매와 물고기가 생산되어 종업원들이 그 덕을 보고있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기와와 목재 등 건설용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해마다 살림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보수해주는 등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벌려왔다.

생산정상화의 든든한 토대가 축성된 결과 오늘 공장에서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다.

특파기자 신경섭

첫 제품개발에 비낀 애국의 마음

백두산경제연합사 정보기술제품개발실에서

실장은 지금 실생원들이 새로 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있는데 《속셈의 별》프로그램은 자기들의 첫 창조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비록 요란한 창조품은 아니어도 초형검이나 다름없는 프로그램 개발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은 자기들이라는 데없이 소중한 성과라고 하면서 개발실생원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무척 감동적이였다.

이렇게 되어 프로그램개발사업이 진행되게 되었고 당조직에서도 이들의 걸음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이들의 첫 창조품은 사용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 이곳 개발실의 첫 연구성과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연구결과가 큰가 작은가를 따지기 전에 당과 조국이라고 바라고 인민이 기다리는것이아니고 어떤 연구과제라도 남김없이 수행해야 한다는것을 이들은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박 현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본사기자 적음

패배자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을 향하여 북측도 나아가는 추세 조건의 비상한 전진에 걸친 미국과 퍼피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서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지금 트럼프페당은 가스폭제도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군사적선택》에 대해 떠벌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최첨단단계에 끌어올리고있다. 미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장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퍼피들과 함께 《군사적대응방안》에 대한 중공의를 버려놓을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핵항공모함타격단들이 조선반도주변해역에 집결하였다. 이미 리성을 상실한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존재, 어느 시각에 북침행군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누구도 알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미국이 무작정 북측, 미싸일포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북과 의 핵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하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세계경의》라는것을 편이로 조작해내고 추종세력들을 반공화국제압박에로 내몰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적당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악무도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행동에서 더욱 두터워 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심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전쟁당파들을 편입시켜대고있는 속에 미군우두머리들은 선제타격으로 추진속결할수 있는 《4D작전계획》에 대해 떠벌이며 그에게 이어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미국과 공조 결탁하여 반공화국제압박사동으로 피눈을 흘리고있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고조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하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세계경의》라는것을 편이로 조작해내고 추종세력들을 반공화국제압박에로 내몰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적당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악무도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행동에서 더욱 두터워 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심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전쟁당파들을 편입시켜대고있는 속에 미군우두머리들은 선제타격으로 추진속결할수 있는 《4D작전계획》에 대해 떠벌이며 그에게 이어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고조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하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세계경의》라는것을 편이로 조작해내고 추종세력들을 반공화국제압박에로 내몰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적당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악무도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행동에서 더욱 두터워 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심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전쟁당파들을 편입시켜대고있는 속에 미군우두머리들은 선제타격으로 추진속결할수 있는 《4D작전계획》에 대해 떠벌이며 그에게 이어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미국과 공조 결탁하여 반공화국제압박사동으로 피눈을 흘리고있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고조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하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세계경의》라는것을 편이로 조작해내고 추종세력들을 반공화국제압박에로 내몰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적당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악무도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행동에서 더욱 두터워 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심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전쟁당파들을 편입시켜대고있는 속에 미군우두머리들은 선제타격으로 추진속결할수 있는 《4D작전계획》에 대해 떠벌이며 그에게 이어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고조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하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세계경의》라는것을 편이로 조작해내고 추종세력들을 반공화국제압박에로 내몰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적당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악무도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행동에서 더욱 두터워 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심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전쟁당파들을 편입시켜대고있는 속에 미군우두머리들은 선제타격으로 추진속결할수 있는 《4D작전계획》에 대해 떠벌이며 그에게 이어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미국과 공조 결탁하여 반공화국제압박사동으로 피눈을 흘리고있는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고조시키는 주되는 요인이다.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하며 우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세계경의》라는것을 편이로 조작해내고 추종세력들을 반공화국제압박에로 내몰고있는것은 주권국가의 존엄과 권리를 해치고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범죄적당도이다.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국악무도한 행동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공갈행동에서 더욱 두터워 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미국은 핵위협공갈의 도수를 최대한 높여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조치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릴 심산에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백악관의 늑다리미치광이 트럼프라는 우리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사하는 전쟁당파들을 편입시켜대고있는 속에 미군우두머리들은 선제타격으로 추진속결할수 있는 《4D작전계획》에 대해 떠벌이며 그에게 이어 미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대적으로 집결되고있는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천추에 용납 못할 대결병자의 악담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끊어질 수 없도록 악담을 퍼부어온 천추에 용납 못할 대결병자의 악담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 《북풍의》 말발음 수습없이 재되었다.

남조선에서 현 당국이 들어선 이후 《북풍의》에 대해 떠벌린것은 총영무역도가 처음이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이자의 방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체에 대한 함살을 없는 증상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외세추종과 매국배적근성이 뼈까지 스며들어있는 가련한 식민지노복, 미국상전들의 사투리나 할어노 정황을 부추겨는 살개바친것은 우리에 대해 어떠한 지참을 버리나 땅담아 총영무역도까지 승리가 올라 발랑하는 꼴이다.

미국과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미국이 무작정 북측, 미싸일포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북과 의 핵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끊어질 수 없도록 악담을 퍼부어온 천추에 용납 못할 대결병자의 악담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 《북풍의》 말발음 수습없이 재되었다.

남조선에서 현 당국이 들어선 이후 《북풍의》에 대해 떠벌린것은 총영무역도가 처음이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이자의 방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체에 대한 함살을 없는 증상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외세추종과 매국배적근성이 뼈까지 스며들어있는 가련한 식민지노복, 미국상전들의 사투리나 할어노 정황을 부추겨는 살개바친것은 우리에 대해 어떠한 지참을 버리나 땅담아 총영무역도까지 승리가 올라 발랑하는 꼴이다.

미국과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미국이 무작정 북측, 미싸일포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북과 의 핵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우리에 대한 적대감이 끊어질 수 없도록 악담을 퍼부어온 천추에 용납 못할 대결병자의 악담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 《북풍의》 말발음 수습없이 재되었다.

남조선에서 현 당국이 들어선 이후 《북풍의》에 대해 떠벌린것은 총영무역도가 처음이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이자의 방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체에 대한 함살을 없는 증상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외세추종과 매국배적근성이 뼈까지 스며들어있는 가련한 식민지노복, 미국상전들의 사투리나 할어노 정황을 부추겨는 살개바친것은 우리에 대해 어떠한 지참을 버리나 땅담아 총영무역도까지 승리가 올라 발랑하는 꼴이다.

미국과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미국이 무작정 북측, 미싸일포기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북과 의 핵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문경은 남조선과 미국의 군부 당국이 49차 20년내안보회의에서 내 놓는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대결을 격화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있다고 규탄하였다.

대결을 추구하는 미국남조선 《공동성명》을 규탄배격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0월 29일 미제와 퍼피들이 버려놓는 반공화국대결의결과와 부당성을 까발리는 문경을 발표하였다.

경악을 자아내는 정치모략군의 죄악

최근 남조선에서 드러나고있는 정지모략군 리명박역도의 범죄행위가 계속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불신을 일으키고있다.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를 참수하라, 적폐세력 뿌리뽑자

서울을 북침전쟁지대로 생각하는 트럼프라는 여기에 와서 과연 평화이야기를 하겠는가 그들은 성로하였다.

남조선 전 지역에서 반미, 반전, 반보수투쟁

그들은 조선반도에서 수천명이 죽어도 괜찮다고 한 트럼프를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국민》으로 맞이하려 하고있는데 초보시민들이 파연 거만있고 있는가고 절규하였다.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최근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진된 평양화장품 공장들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영국의 BBC 방송, 신문 《텐데이 엑스프레스》, 네달린 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 인디아신문 《스태이프렌》, 인디아-아시아통신, 오스트리아의 ORFTV 방송, 몽골 문찌보통신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물들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영국신문 《텐데이 엑스프레스》는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의 가치수도 많고 질도 좋은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력도 참 좋다고 기쁨을 표시하시기도 하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신문은 《조선의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핵위협이 가해지는 속에서도 여유자적으로 개진된 평양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미소로 날려보내시었다.》라고 평하였다.

오스트리아 ORFTV 방송은 조선의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새로 개진된 평양화장품 공장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었다. 현지지도시 조선의 최고명도자는 세계적으로 인공 화장품들과 당당한 경쟁할 수 있는 화장품공장이 새로 개진된 데 대하여 대단찬 표식을 하시었다.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조선인성들의 몸길 실원할 수 있는 질 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조미군사적대결이 여전히 첨예한 속에서도 미국방정관 마리스가 남조선군을 행차하여 세계적으로 최대열점 지역으로 알려졌있는 군사분계선을 시찰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의 최고명도자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는것은 매우 의미적이고 놀라운 현상이 아닐수 없는것이라고 전하였다.

최근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진된 평양화장품 공장들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영국의 BBC 방송, 신문 《텐데이 엑스프레스》, 네달린 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 인디아신문 《스태이프렌》, 인디아-아시아통신, 오스트리아의 ORFTV 방송, 몽골 문찌보통신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물들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다. 영국신문 《텐데이 엑스프레스》는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동지께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는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의 가치수도 많고 질도 좋은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력도 참 좋다고 기쁨을 표시하시기도 하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신문은 《조선의 최고명도자동지께서는 핵위협이 가해지는 속에서도 여유자적으로 개진된 평양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미소로 날려보내시었다.》라고 평하였다.

오스트리아 ORFTV 방송은 조선의 최고명도자동지께서 새로 개진된 평양화장품 공장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었다. 현지지도시 조선의 최고명도자는 세계적으로 인공 화장품들과 당당한 경쟁할 수 있는 화장품공장이 새로 개진된 데 대하여 대단찬 표식을 하시었다.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조선인성들의 몸길 실원할 수 있는 질 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조미군사적대결이 여전히 첨예한 속에서도 미국방정관 마리스가 남조선군을 행차하여 세계적으로 최대열점 지역으로 알려졌있는 군사분계선을 시찰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의 최고명도자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다는것은 매우 의미적이고 놀라운 현상이 아닐수 없는것이라고 전하였다.

전쟁의 불집을 더뜨리려는 무분별한 망동

전쟁미치광이인 트럼프가 아시아행각에 나섰다. 이를 앞두고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화확내질은 전쟁당면들이 트럼프제거를 의에서 마구 튀어나왔다.

트럼프는 북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조선의 《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미국방정관 마리스는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대응에 직면할것》이라는 나팔을 불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미군부조전세력은 《군사적선택》을 운운하면서 핵합종합탁력군들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들이밀고 대규모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난 10월 말도 미국방정관은 11월에 서태평양에서 3개의 미핵함포함라력군들이 집결되어 군사연습을 벌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사이드루즈벨트》, 《니미즈》, 《로널드 레간》호가 이 작전수역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영국신문 《데일리 스타》에 의하면 조선과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이미 미군이 《세계적인 우회》라고 불리는 핵전쟁연습을 비밀리에 시작하였다. 미전력군사령부는 연습의 목적이 임의의 장소에서 신속히 대응할수 있게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난 2일 발도의 연어수공군지에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핵추격기(B-1B)편대가 도착되고있어 처음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고 우리를 겨냥한 기습핵추격기출현을 벌렸다.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번재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핵전략핵추격기(BC-52)전략핵추격기들이 핵무기들을 탑재하고 2.4시간 경계태세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3개의 미핵함포함라력군들의 무모한 핵전쟁발행태세와 비철한 제제압살병을 짓부시고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자 하는 조선의 핵전쟁의 기상은 앞으로 더욱 힘있게 파시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랑스런 승리만을 떨쳐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확신한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트럼프는 북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조선의 《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미국방정관 마리스는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대응에 직면할것》이라는 나팔을 불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미군부조전세력은 《군사적선택》을 운운하면서 핵합종합탁력군들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들이밀고 대규모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난 10월 말도 미국방정관은 11월에 서태평양에서 3개의 미핵함포함라력군들이 집결되어 군사연습을 벌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사이드루즈벨트》, 《니미즈》, 《로널드 레간》호가 이 작전수역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영국신문 《데일리 스타》에 의하면 조선과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이미 미군이 《세계적인 우회》라고 불리는 핵전쟁연습을 비밀리에 시작하였다. 미전력군사령부는 연습의 목적이 임의의 장소에서 신속히 대응할수 있게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난 2일 발도의 연어수공군지에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핵추격기(B-1B)편대가 도착되고있어 처음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고 우리를 겨냥한 기습핵추격기출현을 벌렸다.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번재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핵전략핵추격기(BC-52)전략핵추격기들이 핵무기들을 탑재하고 2.4시간 경계태세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3개의 미핵함포함라력군들의 무모한 핵전쟁발행태세와 비철한 제제압살병을 짓부시고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자 하는 조선의 핵전쟁의 기상은 앞으로 더욱 힘있게 파시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랑스런 승리만을 떨쳐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확신한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트럼프는 북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조선의 《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완전한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밝혔다. 미국방정관 마리스는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적이고 압도적인 군사적대응에 직면할것》이라는 나팔을 불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미군부조전세력은 《군사적선택》을 운운하면서 핵합종합탁력군들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들이밀고 대규모군사연습을 벌여놓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지난 10월 말도 미국방정관은 11월에 서태평양에서 3개의 미핵함포함라력군들이 집결되어 군사연습을 벌인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사이드루즈벨트》, 《니미즈》, 《로널드 레간》호가 이 작전수역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영국신문 《데일리 스타》에 의하면 조선과의 긴장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이미 미군이 《세계적인 우회》라고 불리는 핵전쟁연습을 비밀리에 시작하였다. 미전력군사령부는 연습의 목적이 임의의 장소에서 신속히 대응할수 있게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지난 2일 발도의 연어수공군지에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핵추격기(B-1B)편대가 도착되고있어 처음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고 우리를 겨냥한 기습핵추격기출현을 벌렸다.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두번재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핵전략핵추격기(BC-52)전략핵추격기들이 핵무기들을 탑재하고 2.4시간 경계태세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3개의 미핵함포함라력군들의 무모한 핵전쟁발행태세와 비철한 제제압살병을 짓부시고 병진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자 하는 조선의 핵전쟁의 기상은 앞으로 더욱 힘있게 파시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랑스런 승리만을 떨쳐서 지난날들을 돌이켜보며 다시금 확신한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 유네스코총회 제39차 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프랑스의 파리에서 진행되고있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 제39차회의 3일 회의에서 연설하였다.

그는 사발들의 마음속에 평화의 정신을 심어주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지닌 숭고한 사명이라는 데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류가 넘쳐나는 평화롭고 문명한 세계건설을 위한 유네스코와 국제교육계의 노력은 심각하고도 극적으로 직면하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주민철해와 내정간섭시도들이 계속되고있으며 나라간, 종교간, 문명간 대결 상황이 지속되고있다.

《반테로조》, 《민중주의》, 《간판 밭에 버지는 군사적행동들과 종교간, 문명간 대립으로 인한 분쟁들이 계속되고 사상 최대의 피난민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며 인류의 귀중한 문화적재부가 파괴되고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데 이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은 한것은 지속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에 의해 감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제시정권과 우리 공화국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로골적인 군사적 위협과 압박행위를 역시 유엔헌장과 유네스코의 사명과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는 지속개발목표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공통된 마음속을 가지고 참가할 때에만 실효적으로 달성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협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데 이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은 한것은 지속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에 의해 감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제시정권과 우리 공화국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로골적인 군사적 위협과 압박행위를 역시 유엔헌장과 유네스코의 사명과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는 지속개발목표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공통된 마음속을 가지고 참가할 때에만 실효적으로 달성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협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데 이어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은 한것은 지속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활동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에 의해 감행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제시정권과 우리 공화국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로골적인 군사적 위협과 압박행위를 역시 유엔헌장과 유네스코의 사명과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문명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그는 지속개발목표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공통된 마음속을 가지고 참가할 때에만 실효적으로 달성될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협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나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대변인담화를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우리의 브랜자 라바나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미국 후조대에 감행되고있는 반공주의국제체제를 규탄하였다.

미국에서 언 미국에서 려 핵전쟁을 불 러울지 알수 없는 미치광이 트럼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그의 무력 사용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미국 후조대에 감행되고있는 반공주의국제체제를 규탄하였다.

미국에서 언 미국에서 려 핵전쟁을 불 러울지 알수 없는 미치광이 트럼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그의 무력 사용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미국에서 언 미국에서 려 핵전쟁을 불 러울지 알수 없는 미치광이 트럼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그의 무력 사용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미국 후조대에 감행되고있는 반공주의국제체제를 규탄하였다.

미국에서 언 미국에서 려 핵전쟁을 불 러울지 알수 없는 미치광이 트럼프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그의 무력 사용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다.



최근 짐바브웨와 미국사이의 불신이 깊어지고있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협박하여 짐바브웨의 무가베대통령을 아프리카특별비전접성질병퇴치담당 명예대사로 임명하였던 조지를 철회시키도록 하였다.

짐바브웨가 이것을 자국에 대한 국도의 모독으로, 국제기구까지 무시한 오만무례한 시늉이 없는 행위로 준절히 규탄해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명예대사로 내세운 무가베대통령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짐바브웨의 공공보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적은 세운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유루과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무가베를 아프리카특별비전접성질병퇴치담당 명예대사로 임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와 명예대사로 내세운 무가베대통령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짐바브웨의 공공보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적은 세운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유루과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무가베를 아프리카특별비전접성질병퇴치담당 명예대사로 임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와 명예대사로 내세운 무가베대통령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짐바브웨의 공공보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적은 세운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유루과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무가베를 아프리카특별비전접성질병퇴치담당 명예대사로 임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와 명예대사로 내세운 무가베대통령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짐바브웨의 공공보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적은 세운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유루과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무가베를 아프리카특별비전접성질병퇴치담당 명예대사로 임명하였다.

세계보건기구와 명예대사로 내세운 무가베대통령으로 말하면 지난 시기 짐바브웨의 공공보건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적은 세운것으로 하여 아프리카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이런데로부터 지난 10월 20일 유루과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무가베를 아프리카특별비전접성질병퇴치담당 명예대사로 임명하였다.

한바리에 실어도 찍치지 않을 파렴치한들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내정간섭행위로 얻을것은 고립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노력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것은 불과 엄마한 일이다. 그로 하여 미국은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과 지탄을 받고있다.

그런데 상진의 본을 따는 나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유네스코 탈퇴결정을 내린 후 인차 저를도 탈퇴하겠다고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도 유네스코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뿜며 기구를 위협공작하였다. 신동희도 미국과의 《군인선 동맹과 우호》를 떠드는 수완수들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의 세계제방 안정을 위한 전쟁수행에서 미국의 군사적관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비핵화실현의 걸림대로, 일본은 아시아지배와 침략의 방한기, 출격기지로 써먹고있다.

지배주의는 오만과 독선을 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유네스코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승인에 거부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자 제비위에 거슬린다 하여 기구에